

인간문화재 지상법석

마음 닦는 수행이죠”

나와 망자 그리고 못생명위해 이고득락 발원할때 법계는 극락정도

죽은 영혼의 깨달음을 갈구하는 여법한 의식이기에 공부하면 큰 공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출극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극락을 가질 염원하되 혼자 갈 것을 염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나아가길 염원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망자를 위해 여러 생명을 위해 이고득락(異苦得樂)을 발원할때 중생계는 극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군에 간 아들을 면회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장만해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만 먹이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고생하는 동료들의 것까지 한 보따리를 싸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함께 근무하는 전우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대법입니다.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중생을 나의 몸처럼 생각하는 데서 일체 중생의 성불도 가능해 진다는 것을 영산재를 보여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며칠씩 재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간소화 해서 시연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의 시간이 아니라 그에 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짧은 순간 재에 임해서도 법계를 해탈시킬 발심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유럽의 이민족들이 이러한 마음의 의식에 매료되었던 것은 불교만의 독특한 사상에 반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밤새를 일생동안 해 왔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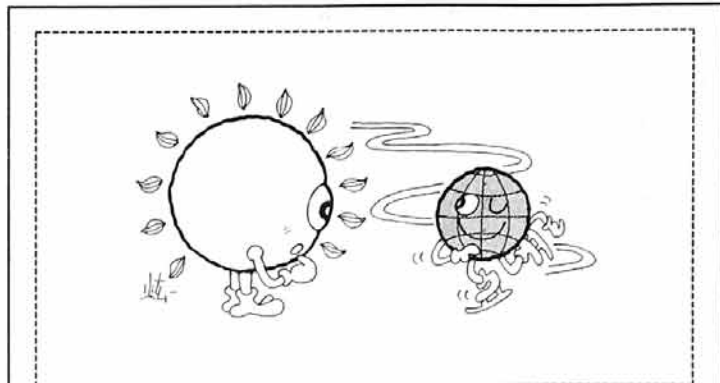
발해 두셨지만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 들이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순진무구가 우리마음의 본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뱃속에서 그 순간의 순진무구를 찾아야 합니다. 살아가며 온갖 더러움에 물든 마음을 다시 순진 무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때가 묻지 않으니깐요.

더러움에 물든 해에는 재가 많아 몹시 바쁘게 됩니다. 윤달이 좋다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발심을 하는데 윤달이 좋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발심은 언제해도 좋은 것입니다. 때와 장소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선망자의 천도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심이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졌습니까. 그렇게 합심발원을 하는 것이 불자들에게는 수심(修心)의 기회가 되고 또 포교의 자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찰 경내가 아니라 무대에 노천극장에서 시연을 하더라도 아담법석(阿曇法席)이란 말 그대로 들이나 마당에 차려진 법도량으로 이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산재를 펼치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이미 부처님 도량입니다. 이 법계가 다 부처님 도량이지만 재를 위해 과불을 걸고 향을 사르고 법사를 모신 그 자리는 여법한 도량입니다. 그리고 그 도량이 정말 청정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참여대중의 청정한 발심이 필요합니다. 재를 지내며 도량을 청정히 하는 의식이 앞서는 것도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재를 지내며 영산재는 참여대중의 마음이 하나 같이 청정하고 일체중생의 성불해탈을 염원해야 합니다. 합심성공(合心成功)의 도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학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일생을 법배로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공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배울때도 그랬고 지금도 나는 성불을 하겠다는 큰 생각보다는 이 공부를 하고 여러 재를 주드한 공덕으로 나와 일체중생(망자



...색즉시공...무...이라고 경전이 설할 때 분별지로 경전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我)'에 집착한 나머지 객관적 실체를 인정하고 '이것이 색(色)이요'하고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를 얻고자하면 상(相)을 버리고 <공(空)>은 설하고 <반(반)심(心)>은 오오이 공한 것을 반(반)으로 비추고 설하는 것이다. 색(色)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사람의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절대시공간을 부정하고서 사람마다 즉 '아(我)'마다 자기가 처한 상태에 따라 물질과 시공간을 보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이 옳고 다 옳다는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상대성이론이다. 객관적 시공간도 없고 객관적인 물리현상도 없다고 들고 때문에 '아'가 보는 시공간과 물질이 존재할 뿐이다. 상대성이론

그리고 공간의 모양을 그렇게 만든 것은 태양이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광평하게 잘 닦여진 바닥에서 공을 굴리면 공은 똑바로 나간다. 이 바닥에 볼록 솟아 나온 산이 있다면 공은 산주위를 돌아서 굴러갈 것이다. 옆에서 지켜보면 무슨 힘이 있어 공을 산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반대로 오목한 굴이 있다면 공은 오목한 쪽으로 굴러갈 것이다. 공은 자유롭게 진행하지만 공이 운동하는 공간의 모양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공은 모양을 갖고 있다. 이 모양은 물질이 만든다. 태양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라면 빛이 지나가는 길도 휘어지게 만든다. 지구상에서 빛을 쏘아 보내면 휘어진다. 그것은 지구주위의 공기가 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양이나

그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별주위로 빛이 진행할 때는 진로가 휘어진다. 그것은 태양이나 별들이 주위의 공간을 휘어 놓았기 때문에 빛을 자유롭게 진행하지만 그 진로가 휘어지는 것이다. 또한 시간의 길이도 중력이 강한 곳과 약한 곳 사이에는 다르게 나타난다. 질량이 큰 별주위에서 진행되는 시간의 길이는 질량이 작은 지상에서 진행되는 시간의 길이와 크게 다르다. 별에서 진행된 시간 1초라 할지라도 지구상에서는 몇년이나 해당할 수도 있다.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말하는 시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물질이 시공간의 모양을 만들고 시공간의 모양에 따라 물질의 운동이 결정되기에 물질과 시공간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만 있는 색이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의 아집에 불과한 것이다. "...색즉시공...무...이라고 경전이 설할 때 이것은 일차적으로 '사리자야, 너는 무엇을 색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각각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87

김성구

반아심경과 물리학 24

영산재는 일체중생 죄업소멸과 선업닦는 의식 “내실 튼튼하면 비록 형식 초라해도 공덕은 무량”

니다. 한 사람을 면회 가는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이 바로 동출극락의 마음인 것입니다. 법계의 모든 중생이 동출극락의 원을 세우고 청정수행을 하는 순간 이 법계는 그대로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영산재를 한갖 불교전통의식이라고 여기고 그 기능인들만이 행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며 그 가르침을 받아 살아 가는 것을 서원하는 자리에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온 세상에 하무도 법계의 찬탄곡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내게 법배를 배우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이 또 가르치고 다시 배운 사람이 다름이에게 가르쳐서 온 세계인이 법계를 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지만 이 법계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일체중생의 해탈성불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동공발심과 동출극락이 한 마당에서 이뤄질 수 있을때 영산회상의 큰 가르침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의 규모에 상관없이 마음다우고 일체중생이 이고득락하길 염원하며 의례를 집전해 왔습니다. 의형에 속으면 내실이 없습니다. 내실이 튼튼하면 형식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 공덕은 무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불자들은 마음을 잘 쓰는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경전의 말씀을 한 마디도 듣지 않았어도 한 시간의 참선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을 바로 쓰면 그 사람이 참된 부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사자나 망자를 위한 지극한 마음을 내는 그 자리에서 법계는 청정해 지는 것입니다.

재를 청해 오는 사람 가운데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기복도 못됩니다. 선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만 그치지 말고 일체중생의 극락왕생을 함께 발원해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 하는 뜻을 잘 새겨 두셔야 하겠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조사님들이

“살아가며 온갖 더러움에 물든 마음
어머니 뱃속서 떨어지는 그 순간의
순진무구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어떤 때도 물질 않습니다”

며칠전 예술의 전당에서 영산재 시연이 있었는데 그 행사의 제목을 누가 '굿과 법배'라고 지어서 내거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정열하고 여법한 의례를 굿으로 아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산재를 구경거리 공연으로 여기는 축제도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여러 사경으로 더러 무대에서 시연을 하지만 그것은 공연이 아니라 경건한 종교적 의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참여 대중이 구경꾼이 아니고 동참발심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

까지도)이 해탈성불의 인연 씨앗을 맺길 비랄 뿐입니다. 씨앗이 맺은 곳에서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것이니 이 법계의 모든 중생이 동출극락할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영산재를 보거나 또는 재를 청하여 주관 하계할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두서없이 얘기 했습니다. 다 이야기 한 것이지만 의식의 의형에만 치우치지 말고 여실한 마음으로 지극히 재에 동참하라는 당부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리자야 무엇을 색이라고 하느냐” 색은 실재하지 않는 ‘관찰자의 아집’

이 나오기 전까지 물리학자들은 포함되어 모든 사람들은 시공간을 '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물질이 존재하든 말든 당면 공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이 공간중에 별들이 점처럼 흩어져 있고 물질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물질이 실재하고 이 실재에 모양이 있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공간에도 모양이 있고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 물질을 떠나 시공간을 생각할 수 없고 시공간을 떠나 물질을 생각할 수도 없다. 또한 시공간 중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운동과 변화는 그것을 경험하는 '아'를 떠나 생각할 수도 없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은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것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물론 만유인력의 법칙은 잘 맞는다. 한때 완벽한 이론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잘 맞았다.

그러나 상대성이론의 설명은 다르다. 누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다. 공간의 모양이 생긴대로 지구는 자유롭게 운동한다. 공간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기에 지구는 태양주위를 돌 뿐이다.

이렇게 물질이 시공간의 모양을 만들고 시공간의 모양에 따라 물질의 운동이 결정되기에 물질과 시공간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만 있는 색이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의 아집에 불과한 것이다. "...색즉시공...무...이라고 경전이 설할 때 이것은 일차적으로 '사리자야, 너는 무엇을 색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멕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번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약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하루 딱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 ₩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미국 수입완제품

김진길(66세) 세계참피온 류명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류마티스·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온 지도자 조희동(통 세계참피온 박종팔의 스승) 씨 등 많은 권위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분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져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주)한국복지공사
농협: 094-01-146584
우체국: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

삼일양행
서울: (대)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塔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佛塔다라니의 신비로운 영험력!

- 1) 본회의 불탑다라니(아미타, 지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를 바꾸어주는 강력한 힘(가)가 계속적으로 발동되고 있습니다.
- 2) 이 힘(가)은 신심같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 지는 위신력을 발휘하여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이 대면 몸속에 불(가)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힘(가)은 사리자야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이 계속적으로 받게되면 약한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어서 모든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려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 3) 그리고 금강경 심판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힘(가)의 흐름을 체르할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건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수 있으며, 조상들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 4) 현재 지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언제 이루어졌는지? 조상님의 영계가 천도되었는지? 하고자 하는일이 성사되었는지? 무수함을 하면 될것인지? 대박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내내 물어갈수 있는것인지? 현재 살고 있는 병환은 낫을 것인지? 언제까지 아플것인지? 등 어떠한 일든 신탑다라니 안에 적어놓고 힘(가)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졌는 힘이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 지려는 것은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힘이 나오면 심중합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힘이 나오지 않음에는 2개월이상 불탑다라니 힘을 받은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 5) 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하고 단순히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불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스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이용한 힘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서 신도들에게 사용돼 주심으로서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겠으면 하는 뜻입니다.>

◎ 불자들에게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불탑다라니 조성 경위와 사용방법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어 스님용 책자 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경상남도
■ 상담문의: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9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 864-3740
■ 기타 지역상담 문의 및
■ 책자신청: ① 성지관음회 (회장 배민)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